

「天君紀」考察

金 東 協

次	目
I. 들머리	3.1. 各回章의 梗概
II. 본론	3.2. 各回章의 검토
1. 발견경위와 書誌	4. 작품과 작자와의 관계
2. 작자와 창작시기	III. 마무리
3. 내용분석	

I. 들머리

필자는 東溟 黃中允(1577~1648)과 그의 작품 天君紀(I), 四代紀, 玉皇紀, 獺川夢遊錄 그리고 天君紀(II)에 대하여 일련의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본고는 이중 두 번째 것으로서 天君紀(I)에 대하여 발견 경위와 書誌, 작자와 창작 시기 그리고 작품의 책임자와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초하게 되었다.

본고의 대상인 天君紀와 같은 작품에 대한 논의는 적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金光淳에 와서 지금까지의 연구가 일단 비판, 정리되었다.¹⁾ 金光淳은 天君紀와 같은 작품을 天君小說이라 명명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天君小說은 心 즉 天君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여 그 아래 많은 신하[四端 七情 등]를 거느리고 百體[온몸]에서 일어나는 心統性情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사건의 배경도 天君의 나라이며, 소개도 대부분 天君과 관계되는 것이고, 주제도 天君과 관계되는 心法의 논리를 다루고 있는 일련의 소설이다. 또 文槧 등을 대상으로 좀 더 조사해 보면 더 많은 작품이 발견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東岡 金宇顒(1540~1603)의 天君傳, 白湖 林悌(1549~1587)의 愁城誌, 菊堂 鄭泰齊(1612~1669)의 天君演義, 滄溪 林永(1649~1696)의 義勝記, 文無子 李鉉(1760?~1807?)의 南靈傳, 歇五齋 鄭琦和(1786~1827)의 天君本紀, 小隱 柳致球(1793~1854)의 天君實錄 등 7편이 天君小說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고 이들에 대하여 작자의 생애와 사상적 경향, 작품의 구조 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논의하였다.²⁾ 본고는 위의 연구에 크게 힘입었음을 밝혀둔다.

1) 金光淳: 「天君小說研究」 형설출판사, 1980.

2) 주 1)과 같음.

II. 본 론

1. 발견 경위와 書誌

필자는 1981년과 1987년 2차에 걸쳐서 경북 울진군 기성면(箕城面) 사동리(沙銅里) 433번지에 있는 海月 黃汝一(1556~1622), 東溟 黃中允(1577~1648) 父子의 宗孫家를 찾았다.

1차 곧 1981년에 있었던 조사는 문학과 언어 연구회 학술 자료 조사단의 일원으로 참가했던 것으로서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계속 되었다. 이때 여기에서

- ① 海月文集 총 220장과 東溟文集 총 158장 그리고 赤壁賦 5장의 판본
- ② 天君紀(Ⅰ), 四代紀, 天皇紀, 天君紀(Ⅱ), 獺川夢遊錄 등의 한문소설
- ③ 海月の 再娶 부인 全州李氏가 후사문제로 관청과 지손에 남긴 遺言文
- ④ 老人歌 등의 가사
- ⑤ 大學諺解

등이 여타 고문헌 및 유물과 함께 보관되어 있는 것을 살펴 보았다. 필자는 이중 ② 곧 天君紀(Ⅰ), 四代紀, 天皇紀, 天君紀(Ⅱ), 獺川夢遊錄을 東溟과 그의 작품연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東溟先生文集序, 天君紀序, 家狀, 書家狀後, 墓碣銘并序, 墓誌銘并序, 跋 그리고 戒酒文 등을 1905년에 간행된 東溟文集에서 뽑아 함께 정리, 간행한 바가 있다.³⁾

2차 곧 1987년에 있었던 조사는 1차 조사의 ②에 대하여 家傳說話 및 참고자료 등을 얻고자 하여 8월 1일 종손 黃義錫씨와 함께 실시하였다. 이때 뜻밖에도 1차 조사 시의 ② 곧 天君紀(Ⅰ), 四代記, 玉皇紀, 天君紀(Ⅱ), 獺川夢遊錄 5편 중에서 天君紀(Ⅱ)를 제외하고 天君紀(Ⅰ), 四代記, 玉皇紀, 獺川夢遊錄 4편이 다른 곳에 다시 섞여져 있음을 발견하고 종손 黃義錫씨의 양해 아래 필자가 보관하고 있다.

이제 이들의 書誌的 측면을 살펴보자. 먼저 1차에서만 살펴본 海月文集, 東溟文集, 遺言文, 老人歌, 大學諺解등을 살펴보고 이어서 1차 2차에서 살펴본, 같은 작품이나 달리 존재하는 天君紀(Ⅰ), 四代紀, 玉皇紀, 獺川夢遊錄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海月文集은 총 220장의 판본이 있었는데 宗孫家に 있으며 大山 李象靖의 序[1774년]가 있는 14권 7책의 영조 52년[1776년]刊 海月文集과 같은 것이 아닌가 한다. 古書綜合目錄에는 영남대학교 도서관에 同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신구문화사의 국어국문학사전 부록 文集目錄에는 영남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에 同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황패강⁴⁾은 원생몽유록의 작자가 金時習도 元昊

3) 黃中允著, 金東協編: 「黃東溟小說集」 문학과언어연구회, 1984. 또 黃中允의 獺川夢遊錄에 대하여 작자, 창작시기 및 이미 학계에 소개된 尹繼善의 獺川夢遊錄과 비교하여 언급한 바도 있다. [“달천몽유록”고찰] [「국어교육연구」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회, 제17집, 1985, 37~56쪽]

4) 황패강: “元生夢遊錄과 林悌文學”(황패강著: 「韓國敘事文學研究」 단국대출판부: 재판, 1977, 269~337쪽)

도 아니고 林悌가 옳다고 하면서 그 증거로서 海月文集에 있는 題林白湖元生夢遊錄後라는 詩와 書林白湖元生夢遊錄後라는 跋을 예로 들면서 海月文集과 林悌의 친구 海月 黃汝一에 대하여 약간 언급한 바가 있다. 필자가 보기에 黃海月은 조선 중기의 역사와 문학, 사상 방면에서 크게 언급되어야 할 정치가요 문인이다. 앞으로의 관심과 연구가 기대되는 바이다.

東溟文集은 총 158장의 판본이 전하고 있다. 이도 李晩燾序, 李中轍跋로 1905년에 간행된 8권 5책의 東溟文集과 같은 것이 아닌가 한다. 東溟도 아버지 海月과 마찬가지로 학자요 시인이기도 하지만 특히 한문소설의 작자로서 크게 주목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海月の 再娶 부인 全州 李氏가 東溟의 후사 문제로 관청과 일가에게 보낸 유언에 대하여는 이미 언급이 있었다.⁵⁾ 海月の 初娶 부인은 義城 金氏로 察訪 龜峯 金守一의 딸이었고 再娶 부인은 전주 이씨로 德原君 李樞의 딸이었으며 또 崔氏 부인이 있었다. 초취 金氏에게서는 東溟뿐이었고 재취 李氏에게서는 中敏 中憲 中順 中遠 中良 등이 있었다. 그런데 東溟에게 후사가 없자 가계 승계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씨의 아들 中敏 中憲 中順 中遠 中良의 아들 가운데서 양자를 세워야 할 형편인데 東溟의 종첩인 「분개」의 아들 石友와 이씨 부인의 맏아들 中敏이 도모하여 宗祀를 달취하여 승계하려 하자 이씨 부인이 이를 알고 中憲의 아들 石來로 양자를 삼을 것을 유언으로 선언한 것이다. 유언은 둘이 있는데 자손에게 남긴 것은 順治 八年 辛卯 三月[1651년, 효종 2년]의 것이고 관가에 보낸 것은 丙申 五月初八日[1656년, 효종 7년]의 것이다. 이는 당시 사회 제도와 가족간의 중사 승계에 관한 가계 제도의 문란 내지 갈등상을 엿볼 수 있는 여성 필적 자료인 동시에 17세기 경상·강원 접촉 방언에 대한 자료라는 가치도 지니고 있다.

그리고 老人歌 등의 가사 작품과 大學諺解 등이 기타 고문헌 및 유물들과 함께 연구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본고에서 관심을 크게 두고 주로 취급하고자 하는 것은 天君紀(I), 四代紀, 玉皇紀, 天君紀(II), 獮川夢遊錄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1차 곧 1981년에 발견한 것을 A-天君紀(I), 四代紀, 玉皇紀, 天君紀(II), 獮川夢遊錄이라 하고 2차 곧 1987년에 발견한 것을 B-天君紀(I), 四代紀, 玉皇紀, 獮川夢遊錄이라 하자.

A-天君紀(I)등은 겉표지에는 三皇演義라고 다른 종이에다가 써서 붙인 옆에 四代紀, 玉皇紀 두 작품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天君紀라는 작품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속표지에는 傳家大寶라 하고 그 옆에 天君紀, 四代紀, 玉皇紀 세 작품의 이름 모두가 기록되어 있다. 물론 실제로는 위 3개의 필사본 한문소설 모두가 함께 편철되어 있다. 겉표지에 天君紀라고 하는 제목이 보이지 않는 것은 마멸되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三皇演義는 天君紀, 四代紀, 玉皇紀 세 작품을 합쳐 부른 것인데 이것을 東溟 자신이 붙인 명칭인지 아니면 후손 누군가가 표지를 붙이면서 붙인 이름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현재로서는 표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天君紀, 四代紀, 玉皇紀 세 작품을

5) 李 玉: “完山李氏遺言考”(『문학과 언어』 문학과 언어연구회, 제3집, 1983, 165~168쪽)

함해서 호칭할 때 三皇演義라 하여도 관계없다고 본다. 그리고 그 겉피 속에 또 하나의 天君紀와 遶川夢遊錄이 들어 있었다. 편위상 전자 곧 四代紀, 玉皇紀와 함께 편철된 天君紀를 天君紀(Ⅰ)이라 하고 후자 곧 겉피 속에 따로 끼워져 있는 天君紀를 天君紀(Ⅱ)라 하고자 한다.

A—天君紀(Ⅰ), 四代紀, 玉皇紀는 가로 27cm, 세로 24.5cm의 한지에 한 쪽당 세로로 16행 전후, 1행당 22자 전후의 판초서로 씌어 있다. 郭線, 界線도 없다. 군데군데 다른 종이를 붙여 다시 쓴 곳도 있고 정정을 가한 곳도 있으며 붉은 색으로 비점을 표시해 둔 곳도 있다. 속표지의 傳家大寶 곧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큰 보배라는 글이 있는 점, 東溟이 만든 水月堂을 증진할 때 후손이 쓴 글이 겉표지의 뒷면에 있는 점 그리고 속표지 뒷면에 초서체 한시가 1쪽 있는 점 등을 보면 작자가 東溟이 확실한 이상 물론 東溟이 붙여 쓰고 정정하고 했겠지만 후손 누군가도 정리를 더해 내려왔던 것이 아닌가 한다. 작품의 편철은 물론 天君紀(Ⅰ), 四代紀, 玉皇紀 순서로 되어 있다.

B—天君紀(Ⅰ), 四代紀, 玉皇紀는 天君紀(Ⅰ)이 1권 1책으로 四代紀, 玉皇紀가 2권 1책으로 되어 있다.

먼저 B—天君紀(Ⅰ)은 표기 우측 상단에 維著라 하고 좌측에 東溟先祖遺稿八이라 한 1권에 실려 있다. 이는 가로 19.5cm, 세로 29cm의 크기에 1쪽당 세로로 10행, 1행당 22자 전후의 筆寫이며 界線과 郭線이 있다. 그리고 첫 쪽에 東溟文集卷之十一 別集이라 한 것이 있는 것으로 봐서 東溟文集 간행시에 모든 문서를 정리하던 중 11권째이나 別集을 간행할 때 넣으려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는 天君紀叙 逸史目錄解 天君紀(Ⅰ)本文 순으로 되어 있다. 天君紀叙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郭線 바로 위에 붉은 색으로 此叙入元稿序中이라는 말이 적혀 있다. 이를 보고 또 1905년에 간행된 문집의 天君紀序와 비교해 보면 이 天君紀叙는 1905년에 간행된 문집의 것과 같으나 약간 자세한 것이라는 바를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요약되어 1905년에 간행된 문집 속에 삽입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逸史目錄解라고 써둔 부분의 郭線 바로 위에 붉은 색으로 此以下不可入元稿中其云別集者有以也란 기록이 있다. 이를 보면 이것이 東溟의 글인데 문집 간행시 문집속에 넣지 않고 別集을 내게 되면 삽입할 예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 逸史目錄解에는 天君紀를 짓게 된 동기 그리고 이를 “逸史라고도 하고 각각 나누어 제목을 붙인 이유”[謂之逸史而各分爲題目者何也] 등이 설명되어 있고⁶⁾ 31개 回章의 제목이 있다. 天君紀 本文은 31개의 章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앞 부분에 제목을 붙였고 1장에서 30장까지의 끝에는 모두 “필경 어떻게 됐는가는 다음 회를 보시오”[畢竟如何下回便見]라 하고 있다.

B—四代紀, 玉皇紀는 표지 우측 상단은 마멸되고 별레가 파먹어 잘 보이지 않으나 天

6) 이 부분은 비록 짧기는 하나 東溟의 소설관을 이해할 수 있는 곳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別稿에서 다룰 예정으로 있다.

君紀, 四代紀, 玉皇紀라 기록된 듯하며 좌측에 東溟先生文集이라 하고 작은 글씨로 卷之만 보이고 이하는 벌레가 다 먹어 보이지 않는 1책에 실려 있는데 四代紀는 東溟文集卷之十二, 玉皇紀는 東溟文集卷之十三이라 한대 실려 있다. 이도 B一天君紀(I)과 마찬가지로 가로 19.5cm, 세로 29cm의 크기에 1쪽당 세로로 10행, 1행당 22자 전후의 筆寫이며 界線과 郭線이 있다. 그리고 첫쪽에 東溟文集卷之十二 別集이라는 것이 있는 점, 四代紀, 玉皇紀라고 제목을 쓴 郭線 바로 위에 붉은색으로 각각 不可入刊이라 한 점으로 봐서 東溟文集 간행시에 모든 문서를 정리할 때 정리되었으나 別集을 간행할 때 넣으려 작정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A一獒川夢遊錄은 가로 18cm, 세로 26.8cm의 한지에 세로로 界線이 있는 총 20쪽의 분량인데 글씨는 정자체이고 한쪽당 세로로 10줄, 1줄당 20자로 되어 있으며 군데군데 20자가 안되는 곳도 있다. 첫머리에 2-3장 落佚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매 1쪽마다 아래 한쪽 귀퉁이 7자 정도는 한지가 찢어져 떨어져 나가고 없다.

B一獒川夢遊錄은 겉표지 우측 상단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으나 賦, 墓碣銘, 策, 行狀, 書, 雜著, 疏 등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좌측에 東溟先祖遺稿라 하였고 속표지 우측 상단에 賦, 雜著, 策, 賦, 書, 疏, 墓誌, 行狀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좌측에 東溟先祖 ㉠㉡ 東溟遺稿라 한 가로 27cm, 세로 35cm 정도의 한지에 1쪽당 세로 16행, 1행 24자 전후의 첫쪽에 東溟遺稿卷之六이라 하여 여러 글이 들어 있는 속에 10쪽의 분량으로 삽입되어 있다. 제목은 씌어 있지 않으며 獒川夢遊錄 첫쪽 郭線 밖 우측에 上一二章 落이라고 씌어 있고 작품 끝 郭線 안에 작은 글씨로 許頭毀彼未詳其何如題目可○可○⁸⁾耳라고 써두었다. 그런데 앞의 이 글씨 곧 許頭~耳는 다른 한지에 써서 붙여둔 것이다.

A一天君紀(II)는 가로 22.5cm, 세로 26.5cm의 한지에 총 6장(11쪽)의 분량인데 글씨는 1쪽당 세로로 13~14행 전후, 1행은 22자 전후의 반초서로 되어 있다. A一天君紀(I)이 실린 三皇演義라 한 것과는 달리 겉표지도 속표지도 없고 편철도 끈으로 묶여 있지 않고 종이로 허술하게 묶여 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天君紀(II)가 東溟 黃中允의 작품이라는 결정적인 근거는 없는 형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2차 조사에서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天君紀(II)는 볼 수 없었다.

2. 작자와 창작시기

대개의 우리 고소설은 그 작자가 분명하지 않다. 현재 확인된 고소설의 양은 영국 사람 스킬렌드[W. E. Skillend]가 역은「고대소설」[Kodae Sosöl: A Survey of Korean Traditional Style Popular Novels, 1968]에 531종이 해설되어 있으며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편 국어국문학사전 부록에 860개의 이름이 실려 있다. 몇몇을 제외하고는

7) ㉠표는 잘려 나가 보이지 않는다는 표시임.

8) ○표시는 글씨가 씌어져 있으나 위에 먹으로 각각 欠자를 덧붙인 것 같아 판독할 수 없다는 표시임.

이들 대부분의 작자를 알지 못한다. 작자와 창작시기를 알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료가 단편적인 것이거나 추론적인 것도 없지 않다. 이러한 형편에 한 사람의 작자가 추가되어 그 작자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큰 의의가 있다.

天君紀(I)의 작자와 창작시기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자료는 4가지가 있다. 첫째는 A—天君紀(I)의 序이고 둘째는 B—天君紀(I)叙이며 세째는 黃中允이 쓴 B—天君紀(I)叙뒤에 있는 逸史目錄解이며 네째는 黃中允의 7대손 冕九가 쓴 家狀에 있는 기록이다. 먼저 이들 각각 서술의 편의상 ㉔㉕㉖라고 하고 인용해 보자.

㉔〔A—天君紀(I)序〕

余少志於讀書而不知門戶自樞衣於寒岡大庵兩先生之門雖知有門戶而質鈍才魯未免醉夢且爲名纏縛束役風埃遂至於肉走屍行者今六十年憶初不知門戶則已既有門戶而反不知所入懲既往之大失痛將來之莫及而備述其從前迷誤於此編寓言之中如此而其所以終能恢復云者未敢自謂能然也蓋欲其從此自警自勉而不遽於舊門戶云爾崇禎癸酉仲秋東溟老夫序

[내가 젊어서 독서에 뜻을 두었으나 門戶를 알지 못하였다. 寒岡 大庵 두 선생에게 출입하면서 글을 배우고부터는 비록 門戶가 있는 줄은 알았으나 본래 둔하고 재주가 없어 술취하고 꿈꾸는 듯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였고 또 명예에 고삐가 매이고 세속일에 얽매어 드디어 몸이 달리고 시체가 가는 듯한 상태가 됨이 이제 60년이 되었다. 슬프다. 처음에 門戶를 알지 못하였으면 그만이지니와 이미 門戶가 있는 줄을 일았고 도리어 들어갈 바를 알지 못해서 과거의 큰 잘못을 징계하고 장래에 미치지 못함을 슬퍼해서 종전에 잘 모르고 틀린 바를 이런 寓言 가운데 이와 같이 備述하였다. 그러나 끝내 恢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감히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대개 이를 따라 스스로 징계하고 스스로 힘써서 舊門戶에서 멀지 않다고 하고자 할 뿐이다. 崇禎 癸酉仲秋 東溟老夫는 序하노라.]

㉕〔B—天君紀(I)叙〕

余少志於讀書而不知門戶自樞衣於寒岡大庵兩先生之門雖知有門戶而質鈍才魯未免醉夢且爲科臼時文所累日夜奔走於槐黃之路者殆十年繼而名纏鹿勒縛束卯申役風埃中者又殆十年本以觸空酒朋重被朝晝桎梏遂至於肉走屍行者今六十年憶初不知門戶則已既有門戶而反不知所入背馳叛去而狼狽於邪歧曲徑之間其於門戶不啻北燕而南轅所謂謬以千里者此也暴棄既久慨然追悔而日暮途遠回首奈何懲既往之大失痛將來之莫及而備述其從前迷誤於此編寓言之中如此而其所以終能恢復云者未敢自謂能然也蓋欲其從此自警自勉而不遽於舊門戶云爾崇禎癸酉仲秋東溟老夫叙

[내가 젊어서 독서에 뜻을 두었으나 門戶를 알지 못하였다. 寒岡 大庵 두 선생에게 출입하면서 글을 배우고 부터는 비록 門戶가 있는 줄은 알았으나 본래 둔하고 재주가 없어 술취하고 꿈꾸는 듯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였고 또 時文에만 범주를 정함에累가 되어 科擧보는 일에 日夜하고 奔走함이 거의 10년이 되었다. 이어서 명예에 고삐가 매이고 세속일에 얽매어 卯時에 조정에 들고 申時에 조정에서 나오고 하면서 風埃中에 일한 지가 또 거의 10년이 되었다. 본래 달을 대하고 술과 벗으로 아침과 낮에 桎梏되어 드디어 몸이 달리고 시체가 가는 듯한 상태에 이른지가 이제 60년이 되었다. 슬프다. 처음에 門戶를 알지 못하였으면 그만이지니와 이미 門戶가 있는 줄 알았으나 도리어 들어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반대로 달리고 반대로 가서 잘못된 歧路와 같은 길에서 狼狽한 채 있으니 이는 門戶에 있어서 北으로 燕나라에 가는데 남쪽으로 수레를 모는 것일 뿐 아니라 이른바 처음에 조금 틀리면 나중에 큰 차이가 난다[毫釐之失差以千里]는 것이 이것이다. 포기함이 오래됨에 슬퍼하면서 늙우치나 남은 저물고 길은 먼데 머리를 돌려보나 어찌하겠는가? 既往의 큰 잘못을 징계하고 장래에 미칠 수 없음을 슬퍼하여

9) B—天君紀(I)叙에는 樞로 되어 있으나 樞의 오류가 아닌가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용은 본문과 같이 樞로 하였으나 뜻은 樞자의 의미로 새겼다.

『天君紀』考察 (金東協)

중전에 잘 모르고 틀렸던 바를 이런 寓言 가운데 이와 같이 備述하였다. 그러나 끝내 恢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감히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대개 이를 따라 스스로 경계하고 스스로 힘써서 舊門戶에서 멀지 않다고 하그자 할 뿐이다. 崇禎 癸酉 仲秋 東溟老夫는 叙하노라.]

㉔ [B—天君紀(I)—逸史目錄解]

或問於余曰天君紀何爲而作也曰慨余之半生迷亂失途而欲乞憐復路之辭也

[이런 사람이 나에게 天君紀는 왜 지었는가 하길래 나의 半生이 迷亂하고 길을 잃어버렸음을 슬퍼해서 고삐를 돌려 길을 돌아가고자 하는 말이라고 대답하였다.]

㉕ [家狀]¹⁰⁾

律身也甚嚴一言一動未嘗放過而尤以酒色爲戒作戒酒文又著天君紀以克治之功喻諸戰伐而酒色爲寇賊誠敬爲將相備禁如仲弓之堅壁勸威如顏淵之斷殺以爲朝夕警省

[몸을 다스림이 심히 엄해서 한 말 한 행동도 일찌기 放過함이 없었고 더우기 酒色을 경계하여 戒酒文을 지었고 또 天君紀를 지었는데 克治의 功을 戰伐에 酒色을 寇賊에 誠敬을 將相에 비유하여 仲弓이 벽을 굳게 하여 勸威하였듯이 備禁하였고 顏淵이 적을 斷殺하여 備禁하였듯이 해서 아침 저녁으로 경계하고 빈성하였다.]

위의 ㉔㉕㉖㉗를 검토해 보자.

앞 제2장 제1절—발견 경위와 書誌부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㉔[A—天君紀(I)] 序)는 ㉕[B—天君紀(I)叙]의 요약이다. ㉔에 있는 것은 모두 ㉕에 들어 있고 ㉕에 있는 것은 ㉔에 없는 것도 있다. 따라서 ㉕만 검토하면 된다. 그리고 ㉕는 물론 東溟의 7대손 垣九(冕九)가 훨씬 뒷날에 쓴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天君紀의 작자, 창작 시기 등을 알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는 못된다고 할 수도 있다. 더우기 창작 당시의 序 등이 있는 경우는 창작을 뒷받침하는 부차적인 자료는 되겠으나 1차적이고 기초적인 자료는 못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戒酒文이 문집에 들어 있고 天君紀序도 있는 것으로 보아 애매하게 家傳 이야기식으로 전해오던 것을, 말하자면 애매한 口傳을 기록하면서 지었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집안에 분명하게 전해오는 것을 보고 창작하였다고 기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¹⁾ ㉕를 보면 天君紀는 東溟이 지은 것이 확실하다. 결국 ㉔㉕㉖㉗의 검토는 ㉕를 검토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제 ㉕를 검토해보자. 여기서 잠깐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東溟의 일생을 약간 언급해 보자.

東溟 黃中允의 일생은 대략 아래와 같이 크게 4기¹²⁾로 나누어진다.

① 1세(출생)~36세(과거급제): 修學期

10) 주 3)의 책 338쪽.

11) 물론 사대부들은 기본적으로 소설을 배격하였다. 그러나 배격되지 않은 소설 또는 배격된 것이라도 극히 일부에선 家傳 이야기를 그대로 믿거나 祖上美化的 입장에서 확실한 근거없이 창작하였다고 기록하여 뒷날 작자 규명에 애매한 점이나 기록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점에서 天君紀는 戒酒文 등이 있는 것으로 봐서 확실한 근거에 기인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12) 주3)의 책, 해제 부분 참고. 그러나 이 부분도 아주 미약하다. 글자는 이에 대한 별고를 준바 중에 있다.

② 36세(과거급제)~47(세인조반정·유배): 宦海期

③ 47세(인조반정·유배)~57세(유배해제·귀향): 流配期

④ 57세(유배해제·귀향)~72세(사망): 閑情期

먼저 ㉔에서 東溟은 자신의 생애를 ㉑“寒岡 大庵 두 선생에게서 글을 배웠으며〔樞衣於寒岡大庵兩先生之門〕”, ㉒“科擧보는 일에 汨沒하고 奔走함이 거의 10년이 되었다〔汨沒奔走於槐黃之路者殆十年〕”, ㉓“風埃中에서 일은 한기가 또 거의 10년이다〔役役風埃中者又殆十年〕”, ㉔“드디어 몸이 달리고 시체가 가는 듯한 상태에 이른지가 이제 60년이 되었다〔至於肉走屍行者今六十年〕”고 하였다.

東溟은 성은 黃, 이름은 中允, 자는 道光, 호는 東溟, 본관은 平海다. 그는 萬曆 丁丑〔1577년, 선조 10년〕음력 5월 7일 酉時 안동 川前里 외가에서 태어나 20세〔1596년, 선조 29년〕에 大庵 朴愷의 딸과 혼인하고 大庵에게 글을 배웠으며 24세〔1600년, 선조 33년〕에 寒岡 鄭述에게 글을 배웠다. 이는 앞의 ㉑과 일치한다.

또 그는 23세〔1599년, 선조 32년〕에 司馬試에 응시한 적이 있고 26세〔1602년〕에 모친상을 당했고, 28세〔1604년, 선조 37년〕에 상을 마치고 司馬試를 보았고 29세〔1605년, 선조 38년〕에 생원 진사 覆試에 모두 합격하였다. 그리고 35세〔1611년, 광해 3년〕때인 辛亥년 봄 增廣試를 본적이 있으며 36세〔1612년, 광해 4년〕때인 壬子年 9월에 增廣 甲科 第三人으로 급제하였다. 곧 그가 과거를 본 기간은 23세부터 36세까지이다. 이중 모친상을 당한 기간을 제외하면 ㉒과 일치한다. 크게 보아 모친상을 당한 기간을 포함하더라도 ㉒과 일치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어서 그는 38세〔1614년, 광해 6년〕甲寅年 1월에 禮賓寺直長, 2월에 성균관 典籍을 제수 받고 그 이듬해 春秋館編修官, 司諫院 正言이 되었다. 이때 대비에게 孝를 다할 것을 疏請하였다가 광해군의 진노를 사서 파직당하였고, 1617년에 獻納, 佐郎, 正郎이 되었으나 사양하고 1619년 賁咨官으로 遼東에 다녀와서 直講, 持平이 되었다. 1620년 同副承旨가 되어 奏聞使로 明에 가서 咨文을 올리고 8월 1일 明 光宗 황제의 즉위식에 참여하기도 하였고 右副·左副承旨가 되고 龍川府使로 임명되었으나 사양하였다. 이해 겨울에 淸兵이 宣川에 침입하매 公이 길으로 宥和策을 쓰면서도 안으로 수비를 튼튼히 할 것을 주장했다가 朴承宗에게 主和論者로 몰려 다음날 사직하고 다시는 관제에 나가지 못했다. 이를 보면 36세에 과거에 급제한 후 45세에 사직할 때까지가 10년 이어서 ㉓과 일치한다.

그리고 46세에 부친상을 당하고 47세〔1623년, 광해 15년〕에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海南에 안치되었다가 55세〔1631년, 인조 9년〕5월에 瑞山으로 유배지를 옮겼다가 57세인 1633년〔인조 11년〕癸酉 5월에 임금의 특명으로 돌아오니 臺論이 다시 있었다. 이해 仲秋에 天君紀叙를 지었다. 東溟 黃中允이 天君紀叙를 쓴 시기 곧 崇禎 癸酉 仲秋는 그의 나이 57세인 1633년이다. 이는 60년이라고 말한 ㉔과 일치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보통 어떤 글의 叙는 글이 다 완성된 후에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면 天君紀는 언

제 지었는가? 그는 45세에 벼슬에서 물러나 46세〔1622년, 광해 14년〕4월에 부친상을 당하였고 47세〔1623년, 광해 15년〕 곧 인조반정이 일어났을 때는 省墓 관계로 선산에 머물렀다.¹³⁾ 그리고 곧 유배를 떠났다. 유배를 떠날 때 書史를 가져갔다는 기록이 있다.¹⁴⁾ 따라서 필자는 東溟 黃中允의 天君紀는 1623년〔인조 1년〕음력 6월 이후~1633년〔인조 11년〕음력 仲秋 사이 곧 필자의 나이 47세~55세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3.1. 各回章의 梗概

3. 내용 분석

B—天君紀(I)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31회의 回章體로 되어 있다. 이제 回章에 따라 各回章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天君即位分封官; 天君은 외부의 命을 받아 거행하는 目官·鼻官·耳官·口官의 4官과 情府의 喜〔驅愁將軍〕·怒〔建威將軍〕·哀〔懷感將軍〕·樂〔鎮歡將軍〕·愛〔揚仁將軍〕·惡〔督過將軍〕·欲〔五利將軍〕氏를 거느리고 나라를 잘 다스렸으나, 壯年에 이르러서는 방탕하는 일을 좋아해 뱃속의 正宮에 거처하는 일이 대개 적었다.

② 都督戰霸荊園中; 文藝가 毛穎·陳玄·楮知白·陶泓의 4사람을 천거하여 天君을 月宮(과거)에 오르도록 하며, 天君이 뜻이 가득하고 기운이 넘쳐 득의 양양한 행동이 나타나 그의 장래가 걱정되었다.

③ 王利將軍薦愍生; 天君이 벼슬길에 나아가 기쁜 흥취가 있어 몸 단속을 하지 않아 허망해진 틈을 타서 愍氏가 愍生을 천거하니, 龍樂侯란 벼슬을 주고 親狎하자, 天君의 덕망이 날로 줄어들었다.

④ 惺惺翁來諫天君; 惺惺翁이 天君의 현혹됨을 諫했으나 듣지 않자 물러나와 상소하였다.

⑤ 羣邪交讒惺惺翁; 督過將軍 惡氏, 建威將軍 怒氏 및 愍生이 惺惺翁을 참소함에 天君도 惺惺翁을 꾸짖고 쫓아내자, 惺惺翁은 관직을 버리고 숨어버렸다.

⑥ 天君耽遊志浩蕩; 督過將軍 惡氏등이 天君에게 권유하자, 天君은 봄 흥취를 타서 방탕하며 자연의 경치를 玩賞하고 노는데 빠져 돌아가는 것도 잊고 있었다.

⑦ 目官奔走告妖賊; 目官은 越白이 쳐들어옴을 天君에게 아뢰니 天君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보라고 하였다.

⑧ 妖兵乘虛入關門; 越白이 쳐들어 옴에 目官이 항복하자 越白이 기뻐하며 向導官으로 삼고, 目官은 天君에게 항복을 권하면서 欲氏과 愍生과 함께 계책을 세웠다.

13) 癸亥三月十三日同知金臺前平山府使李貴前防禦使申景禎長湍府使李曙北兵使李适訓練大將李興立幼學金自點乚器遠前佐郎崔鳴吉等戴今上即位反正也時余在父喪省墓于五台山仍留宿山下耕荒計也〔南遷目錄〕

東溟의 南遷目錄은 인조 반정이 일어난 1623년 음력 3월 13일부터 그가 유배지인 海南에 도착한 5월 22일까지의 기록이다.

14) 六月到配所杜門潛居日讀所載書史以消遣 주 3)의 책 334쪽.

⑨ 越白大戰困天君；越白이 天君을 유인하여 구덩이(性器)에 빠뜨려 곤란하게 하였다.

⑩ 懽伯乘勢大入寇；懽伯이 술가게에 숨어서 越白과 잘 지냈는데, 越白이 군사를 일으킴에 懽伯이 크게 기뻐하여 平舌齒로 치들어 가니 口官이 항복하거늘 懽伯이 그를 引接使로 임명하였다.

⑪ 天君親戰被大敗；口官을 引接使로 하여 懽伯이 목구멍으로 달려드니 天君은 朱肺, 朱脾, 大腸, 小腸으로 저항했으나 크게 패하여 포위되었다.

⑫ 二官望風皆順賊；耳官・鼻官이 懽伯에게 항복하여 적에게 순응함에 天君은 형세가 고독하고 쇠약해졌다.

⑬ 丹元說賊求和解；丹元이 天君을 위해 越白, 懽伯에게 和解를 청하여 승락을 얻고 天君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⑭ 慾生替通留二賊；慾生이 丹元の 화해한 일을 알고 越白과 懽伯을 머물게 하였다.

⑮ 黑甜導入酣眠國；天君이 亂을 피해 간다는 소리를 黑甜(낮잠)이 듣고 酣眠國으로 인도하여 마음이 자못 편안하였으나, 睡魔의 공격을 받아 고통을 당하고 있던 중 魂氏, 魄氏의 도움을 받아 그대로 구차하게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⑯ 有悔氏召惺惺翁；有悔氏가 天君의 詔書를 갖고 惺惺翁을 부르러 가니 惺惺翁이 감격하여 有悔氏를 따라 나오자 天君이 반갑게 맞이 하였다.

⑰ 惺惺翁薦大元帥；惺惺翁이 적을 탐정하고 主一翁을 天君에게 추천하니 天君이 惺惺翁으로 하여금 몸소 가서 主一翁을 불러 오도록 하였다.

⑱ 御駕親迎主一翁；天君이 齋戒를 하고 惺惺翁의 안내로 主一翁을 맞아 함께 돌아왔다.

⑲ 等壇擇日拜大將；天君이 主一翁을 大將軍에 임명하고, 壇을 쌓고, 날을 골라 제수 하는 식을 치르고, 이어 갑옷과 칼도 주고 越白과 懽伯을 엮애라 하자 主一翁도 王命을 꼭 이루겠다고 다짐하고 天君 옆의 惺惺翁을 도울 사람이 있으니 왜 빨리 그를 이르게 하기 않느냐고 하였다.

⑳ 天君特召誠意伯；天君이 主一翁의 천거로 親筆의 詔書로 誠意伯을 불렀다. 이에 誠意伯이 天君의 정성을 알고 들어오자 몸소 맞아 정승으로 삼았다.

㉑ 主一翁上表出師；天君이 主一翁에게 적을 치도록 하매, 主一翁이 출발하면서 表文을 올리고, 나서서는 檄文으로 馮氏등 7장군을 부르니 馮氏등 6장군이 자신들은 本意가 아니었다고 하였다. 慾氏와 慾生은 二賊(越白・懽伯)에게 붙어서 지킬 계획은 세우고 있었고 6장군은 轅門밖에 엮드리자 主一翁이 꾸짖고 이들이 모두 天君의 친척이므로 改過遷善하도록 감금하여 두었다. 이어서 主一翁이 檄文을 짓고자 하였으나 文藝 등 4인이 모두 賊에게 귀순하였으므로 다른 4 사람을 오게 하였다.

㉒ 二賊慢罵主一翁；元銳등 4인이 檄文을 짓고 또 慾氏와 慾生 등이 있는 곳에 檄文을 지어 보내자 越白과 懽伯이 檄文을 보고 도리어 慾氏, 慾生등과 모의하고 主一翁을 회롱 하였다.

㉓ 主一翁起兵誓師；主一翁이 志帥・氣帥등을 임명하고 자신은 원수가 되어 군사들에게 欲과 慾을 사로잡으면 二賊은 무너질 것이니, 欲과 慾¹⁵⁾을 사로잡는 자가 제일의 공로이고 越白과 歡伯을 깨뜨린 자가 그 다음의 공로이고, 적에게 항복한 자는 법대로 다스리리라 하고, 主一翁 자신이 장막 위에 올라 앉아 二賊에게 戰書를 보냈다.

㉔ 大將軍擊走歡伯；主一翁이 세길로 협공을 하니 歡伯은 술잔에서 새어나와 도망하였다.

㉕ 主一翁驅兵追越白；越白이 4장수를 거느리고 도전하거늘 主一翁이 志帥와 氣帥를 불러서 계책을 주니, 百嬌 등 4장수가 공중으로 달아나고 越白도 피하여 가거늘, 志帥, 氣帥 두 장수는 승리하여 主一翁에게 돌아와 보였다.

㉖ 主一翁數罪誅慾生；主一翁이 天理로서 慾生을 잡게 하고, 군사를 거느려 欲氏와 慾生을 묶어 陣막에 두고 구짚으며 天君의 처분을 받게 하였다.

㉗ 天君還都褒三傑；主一翁이 慾生을 배고 天君을 맞이하여 옛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天君은 惺惺翁, 主一翁, 誠意伯 등 한 무리의 모든 신하를 조회하고, 이들을 漢의 三傑과 비유하여 크게 치하하니 모두 절하고 사례하였다.

㉘ 三人交薦五賢士；主一翁, 惺惺翁, 誠意伯이 의논하여 神明宮 앞에 入德門을 세워 天君이 출입할 때에는 이 門으로 드나들게 하고, 元仁・文禮・正義・周智・受信 다섯 선비를 추천하니, 사람들은 이를 主常이라 하고 天君이 한 번 보고 옛 친지와 같아서 과우에 두게 하였다.

㉙ 惺翁贊頌主一翁；惺惺翁이 天君에게 主一翁을 스승으로 섬겨 떨어지지 않으면 天理도 조정에 들어서리라 하니, 天君이 主一翁을 스승으로 삼았다.

㉚ 二賊提兵更謀亂；越白과 歡伯이 군사를 모아 다시 亂을 도모하려고 天君의 나라에 이튼 즉, 방비가 엄하고 피폐하기 않아 두 적이 침범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드디어 깃발을 내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㉛ 天君平難封功臣；天君은 惺惺翁, 主一翁, 誠意伯에게는 官職으로 포상하고 天理・志帥・氣帥・審悟・栴神・魂氏・魄氏・朱肺・朱脾・大腸・小腸 등은 벼슬을 높여주고, 怒氏・哀氏・惡氏는 본래의 벼슬로 회복시키고, 文藝, 毛穎도 한 계급씩 올리고, 耳官・目官・鼻官・口官과 喜氏・樂氏・愛氏 등은 죄를 논해 軍法으로서 처단하니, 惺惺翁이 나와 관용을 베풀어주도록 청하자 天君이 이를 들어서 官職만 삭탈하도록 명령하고, 欲氏는 임금의 친척이므로 한 등급 감하여 귀양을 보냈다.

3.2. 각 回章의 검토

이제 앞에서 요약된 바를 정리 검토해 보자.

〔A〕

15) 天君紀에서 欲氏를 欲으로 慾生을 慾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이런 곳이 여러 군데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였다.

天君이 四官과 驅愁將軍 등 7장군을 거느리고 정치를 갈렸으나 壯年에 이르러 방랑을 좋아하여 正宮에 거처하는 일이 적었다(①). 이때 文藝가 毛穎 등 4 사람을 천거함에 天君이 과거에 오르게 되어 뜻이 가득하고 기운이 넘쳐 득의 양양한 행동이 나타나 장래가 걱정되었다(②).

A 단계는 상황제시의 단계이다. 天君의 출생지, 建元, 都邑地, 先代, 姓名 등이 제시되고, 나라로 본다면 天君이 太平歲月을 누리다가 혼란의 징조가 보이는, 心性의 입장에서 본다면 平靜을 유지하고 있다가 혼란의 징조가 나타날 것 같은 상황이 된 상태이다. 이를 人物型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상적으로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상태 곧 忠臣型이 득세하고 奸臣型이 위축된 상태에서 天君이 게으르고 오만한 상태 곧 奸臣型이 득세하고 忠臣型이 위축된 상태로 될지도 모를, 그런 위험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B]

B-1: 天君이 노는 것을 좋아해서 덕망이 날로 줄어들자(③) 惺惺翁은 諫해도 듣지 않자 물러나 상소한다(④). 이에 惡氏·怒氏·慾生이 惺惺翁을 참소하고 惺惺翁은 天君의 꾸지람을 듣고 쫓겨나 숨어버린다(⑤). 天君은 더욱 놀기를 좋아했으며(⑥) 越白이 항복을 권하며 치들어 왔다(⑧).

B-1단계는 天君이 迷惑해서 忠臣型人物을 멀리하고 奸臣型人物을 가까이 하는 과정이다. 忠臣型 인물이 天君의 신임을 받아 奸臣型 인물을 제어하지 못하고 奸臣型이 忠臣型의 통제를 벗어나는 과정이다. 그러나 아직은 忠臣型이 奸臣型보다 우세한 입장에 있다.

B-2: 天君이 越白에게 곤란을 당하고(⑨) 歎伯도 침략해 와(⑩) 天君이 저항하다가 크게 패하여 포위되자(⑪) 耳官·鼻官도 항복하여 天君의 형세가 고독하고 쇠약해졌으며(⑫) 丹元이 和解를 청하자(⑬) 慾生이 越白·歎伯을 머물게 하였고(⑭) 天君은 깊은 잠에 빠져 구차히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⑮).

B-2단계는 忠臣型 인물과 奸臣型 인물의 갈등에서 후자가 전자보다 우세한 입장에 이른 단계이다.

B-3: 有悔氏가 惺惺翁을 불러 오고(⑯) 惺惺翁은 主一翁을 천거하자(⑰) 天君이 主一翁을 찾아가 맞아들여(⑱) 대장군에 임명하고(⑲) 誠意伯을 불러 정승에 임명한 후(⑳) 主一翁이 출정하여 檄文으로 부르니 喜氏 등 6장군은 귀순하여 왔으나(㉑) 越白·歎伯은 欲氏·慾生과 모의하여 主一翁을 회롱하였다(㉒). 主一翁이 欲氏 慾生에게 戰書를 보냈다(㉓).

B-3단계는 天君이 곤경에 처해 있다가 忠臣型 인물들에 의해 구제되어가는 과정으로 忠臣型과 奸臣型의 갈등과정에서 다시 전자의 입지가 상승되고 후자의 입지는 하강하는 단계이다.

B-4: 主一翁이 歎伯을 쳐부수고(㉔) 越白도 치고(㉕) 欲氏와 慾生을 잡아(㉖) 慾生을 베고 옛 서울로 돌아와 惺惺翁·主一翁·誠意伯을 포상하였다(㉗).

「天君紀」考察 (金東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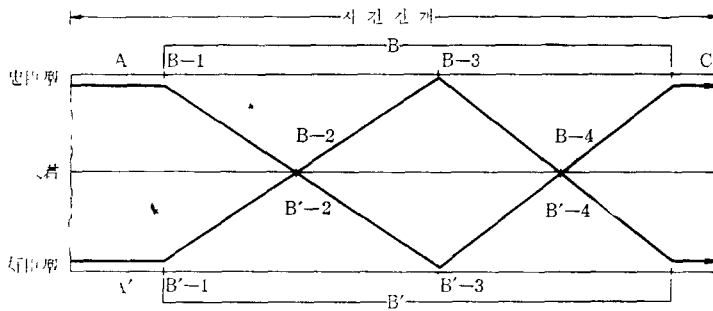
B-4단계는 忠臣型 인물과 奸臣型 인물의 대립에서 전자와 후자 모두가 최초 단계의 상태에 이른 단계이다.

[C]

誠意伯・主一翁・惺惺翁이 五常을 천거하고(㉞) 天君이 主一翁을 스승으로 삼는다(㉟). 이제 다시 越白과 歡伯이 亂을 도모하려 天君의 나라에 왔으나 방비가 엄하여 가버렸고(㊱) 天君은 論功行賞을 실시하였다(㊲).

C단계는 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太平歲月을 누리고 있는 상태, 心性의 입장에서 본다면 平靜이 유지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 때의 太平, 平靜은 A단계 상태의 太平, 平靜과 질적으로 아주 다르다. A단계의 太平 平靜은 迷惑에 빠질 가능성을 포함한 太平, 平靜이라면 C단계의 太平, 平靜은 迷惑에 빠질 가능성을 벗어난 太平, 平靜이다. (心性和 관련된 점은 후술한다.)

기금까지의 검토를 天君을 중심으로 忠臣型 인물, 奸臣型 인물로 나누어 사건 전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 작품과 작자와의 관계

앞의 3·2各回章의 검토에서 우리는 人物型에 의하여 작품을 분석한 결과, 天君紀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 平靜 상태 : 忠臣型 인물 > 奸臣型 인물

B. { B-1 : 迷惑과정 : 忠臣型 인물 > 奸臣型 인물
 { B-2 : 迷惑과정 : 忠臣型 인물 < 奸臣型 인물
 { B-3 : 恢復과정 : 忠臣型 인물 < 奸臣型 인물
 { B-4 : 恢復과정 : 忠臣型 인물 > 奸臣型 인물

C. 恢復 상태 : 忠臣型 인물 > 奸臣型 인물

天君이란 心 즉 마음의 의인이다. 이 작품의 짜임새를 작자의 心性 상태에서 보면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단계의 天君과 C단계의 天君은 비록 형식적으로 볼 때는 제자리로 돌아왔으나[恢

復〕 내용적으로 볼 때는 360°변한 天君이다. A단계의 天君은 越白(여자)과 歡伯(술)에 빠질 가능성을 많이 내포한 心이라 한다면 C단계의 天君은 越白과 歡伯에 또 다시 빠질 가능성을 거의 청산한 心이라 할 수 있다. 유학적 입장에서 말한다면 人欲을 제거하고 天理를 회복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天君紀는 人欲을 제거하고 天理를 회복하는 과정의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공자의 〈克己復禮〉, 맹자의 〈反其本〉, 〈反經〉 程子の 〈復其初〉, 朱子の 〈勝私復禮〉, 王陽明의 〈勝私復理〉 또는 〈復其本然〉¹⁶⁾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지가 되면 자연과 인간, 정신과 신체, 자아와 타인, 가아와 사물이 각각 調和를 이루며 자기 존재의 자기 超克이 이루어져 聖人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연과 인간이 天人無間: 盡性知命의 단계가 되며, 정신과 신체가 志氣相養: 存心養性의 단계가 되며, 자아와 타인이 民吾同胞: 孝悌忠信의 단계가 되며, 자아와 사물이 物我一理: 因物付物의 단계가 되며, 自我存在의 自己超克〔維新不息: 克己復禮〕이 이루어진다고 한다.¹⁷⁾

여기서 논의의 초점을 바꾸어 心經과 天君紀의 관련성에 대하여 언급해 보자. 西山眞德秀의 心經은 書 大禹謨 人心道心章에서 시작해서 朱子の 尊德性齋銘에 이르기까지 37개 항목에 걸쳐 書, 詩, 易, 論語, 中庸, 大學, 樂記, 孟子 등의 경전과 周子, 程子, 范氏, 朱子의 글에서 心을 공부하거나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한 先學들의 설명, 주장 등을 모아 엮은 것이다. 天君紀는 근본적으로 心經과 같은 서적들의 사상에 근거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용어, 표현법 등도 心經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天君紀는 心經을 그대로 나타낸 것 말하자면 心經의 내용을 구체적 사물을 빌어서 그대로 구현해 낸 것이 아니다. 天君紀는 心經의 설명이 아니다. 心經은 心經이고 天君紀는 天君紀이다. 사실 心經은 各章마다 여러 先學들의 주장, 설명 등을 편집한 말하자면 책 전체의 총체적 통일성이 다소 결여된 것이라면 天君紀는 오직 하나의 통일원리에 의하여 씌어진 것이다. 心經과 天君紀는 각각 자기대로 통일된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독립된 세계의 것이다. 天君紀는 주로 心經의 儒學思想을 배경으로 지어졌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心經이 그대로 구현된 것은 아니다.

다시 天君紀 논의로 돌아 와서 A, B, C단계의 관계를 살펴보자.

소실은 A단계→B단계→C단계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나 각자 개인의 마음의 상태에서 보면 A단계와 C단계의 마음의 상태는 유사하다. 곧 C단계에서 放心하면 A단계가 되어 B단계로 가버린다. 聖人처럼 마음이 언제나 C단계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렇지 않았으나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C단계에서 조금만 主一無適 곧 敬하지 않으면 A단계를 거쳐 B단계로 쉽게 바뀌려 한다. 이는

16) 申午鉉: “儒學의 人間理解—超人의 理念으로서 君子의 概念—”〔申午鉉編: 「人間의 本質—人間 理念史의 現代的 照明—」 형설출판사, 1984, 53쪽〕

17) 주 16)와 같음.

A·C 단계 $\longleftrightarrow$ B 단계

곧 A·C 단계 $\rightarrow$ B 단계 $\rightarrow$ A·C 단계로 끊임없이, 하루에도 만 번씩 [一日萬機] 바뀌려 한다. 그래서 작자는 天君紀敍에서 자신의 60까지의 생애를 회고한 후 이렇게 말하였다.

①처음에 門戶를 알지 못하였으면 그만이지거니와 이미 門戶가 있는 줄 알았으나 ②도리어 들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반대로 달리고 반대로 가서 잘못된 岐路와 굽은 길에서 狼狽한 채 있으니 이는 門戶이 있어서 北으로 燕나라에 가는데 남쪽으로 수레를 모는 것일 뿐 아니라 이른바 처음에 조금 틀리면 나중에 큰 차이가 난다(毫釐之差以千里)는 것이 이것이다. ③포기함이 오내 됨에 슬피하면서 뉘우치나 남은 저물고 길은 먼데 머리를 돌려보나 어찌 하겠는가? 既往의 큰 잘못을 정제하고 장래에 미칠 수 없음을 슬피하여 종전에 잘 모르고 틀렸던 바를 이런 寓言 가운데 이와 같이 備述하였다. 그러나 끝내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감히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내게 이를 따라 스스로 경계하고 스스로 힘써서 舊門戶에서 멀지 않다고 하고 자 할 뿐이다. [初不知門戶則既已知有門戶而反不知所入背馳叛去而狼狽於邪岐曲徑之間其於門戶不啻北燕而南轅所謂謬以千里者此也暴棄既久慨然追悔而日暮途遠回首奈何懲既往之大失痛將來之莫及而備述其從前迷誤於此編寓言之中如此而其所以終能恢復云者未敢自謂能然也蓋依其從此自警自勉而不遠於舊門戶云爾]

위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당인히 스승에게서 젊은날에 배운바와 같이(①) 해야하나 그렇지 못하고 ②처럼 되었다. 그래서 지금 ③처럼 슬피하고 뉘우치면서 과거의 잘못을 슬피하고 미래에는 이러기 않겠다고 하고 天君紀를 지었다. 작자는 天君紀를 지어서 스스로 경계하고 스스로 힘쓰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감히 恢復했다고는 말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A·C 단계 $\longleftrightarrow$ B 단계

에서 C의 단계에 있으려고 경계하고 힘쓰고 하는 것이지 이미 C의 단계에 이르러 다시는 A 단계로, 다시 B 단계로 가지 않는 상태 곧 恢復의 상태가 된 바라고 말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곧 A·C 단계 $\longleftrightarrow$ B 단계에서 거의 C 단계에 이르렀으나 언제나 마음 한 구석에 A 단계, B 단계가 남아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C 단계에 이르려고 경계하고 힘쓰는 형편이다. 이런 인간이 유학에 있어서 이상형의 인간인기도 모른다. 인간은 신체적 존재라는 사실을 포기하기 않는한 外物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고, 外物과의 관계에서 物化는 곧 인간 존재의 최악의 상태이다. 인간 존재는 바로 이러한 物化에 의해 자신의 본래적 존재 모습을 상실하는데서 벗어나려고 하는 존재 곧 존재 가능성으로의 復歸를 꿈꾸는 존재이다. 天君紀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존재를 회구하는 생각의 표현이다.

Ⅲ. 마 무 리

지금까지 우리는 天君紀(Ⅰ)에 대하여 발견 경위와 書誌, 작자와 창작시기 그리고 작

품의 짜임새와 의미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대신 하고자 한다.

1. 天君紀(I)은 동일한 작품이지만 두 형태로 존재하였다. 1981년에 발견된 것과 1987년에 발견된 것이 그것인데 전자 곧〔A-天君紀(I)〕은 四代紀, 玉皇紀와 함께 편철되어 三皇演義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本文만 있으며, 반초서로 되어 있어서 東溟 黃中允(1577~1648)이 쓴 草稿로 추측되고, 후자 곧〔B-天君紀(I)〕은 1905년 문집 간행기에 草稿를 다시 정리한 것이라 추측되며 天君紀叙 逸史目錄解 本文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자체이고 回章으로 分章되어 있으며 1장~30장의 끝에 畢竟如何下回便見이라 써여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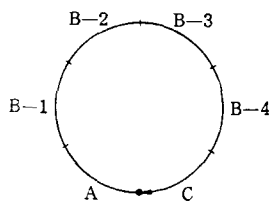
2. 작자와 창작시기를 알게 해주는 자료는 4가지인데 ㉔ 1905년에 간행된 문집속의 天君紀序, ㉕ 문집 간행시 정리한 것으로 추측되는 것〔B-天君紀(I)〕의 天君紀叙, ㉖ 天君紀叙 바로 뒤에 이어져 있는 逸史目錄解의 기록 ㉗ 7대손 晁九가 쓴 家狀의 기록이 그것들이다. 이 중 ㉔는 ㉕의 요약이라 추측되며 ㉖를 보면 작자가 黃中允이라는 점은 확실하고 ㉗는 家傳의 여러 문헌을 보고 기록한 후대의 것이다. 따라서 작자와 창작시기를 알 수 있는 1차적이고 근본적인 자료는 ㉕이다. 이를 검토해 보면 天君紀의 작자는 東溟 黃中允(1577~1648)이 확실하며, 창작시기는 1623년〔仁祖 1년〕음력 6월 이후~1633년〔仁祖 11년〕음력 仲秋사이, 작자 黃中允의 나이 47~55세 사이라 판단된다.

3. 天君紀는 31회의 回章體로 되어 있으나 작품의 구조는 총신형과 간신형의 인물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A : 平靜상태 : 총신형 인물 > 간신형 인물

B { $\begin{cases} B-1 : \text{迷惑과정} : \text{총신형 인물} > \text{간신형 인물} \\ B-2 : \text{迷惑과정} : \text{총신형 인물} < \text{간신형 인물} \\ B-3 : \text{恢復과정} : \text{총신형 인물} < \text{간신형 인물} \\ B-4 : \text{恢復과정} : \text{총신형 인물} > \text{간신형 인물} \end{cases}$

C : 恢復상태 : 총신형 인물 > 간신형 인물



이것은 天君이 心의 의인인 이상 「A단계→B단계→C단계」는 곧 유학에서 말하는 人欲을 제거하고 天理를 恢復하는 과정이며, 연속적인 개인 심리의 입장에서 보면 「A·C 단계↔B단계」이다. 이 갈등은 작자 개인의 일생과도 같으며 이것은 또한 「A·C 단계↔B 단계」의 갈등을 겪으면서도 거의 恢復의 지경에 이른 「가능성으로서의 인간 존재」를 꿈꾸는 자신의 모습이다.